

조자이지 절

조자이지 절은 8세기 초에 건립되었습니다. 625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삼론종(불교 종파의 하나)의 사찰이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1012년에는 9세기에 중국에서 전래되어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가 있는 진언종으로 개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자이지 절에는 다이코쿠텐 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일본 신화의 칠복신 중 한 명인 다이코쿠텐은 인도의 시바 신과 신도의 오쿠니누시가 융합하여 태어난 신으로 부와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배길 양쪽에는 인왕상이 2개 있습니다. 사나운 모습은 재앙이 사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인왕상들은 1825년에 현지에서 채석된 돌로 조각되었습니다. 1980년 7월 12일에 우레시노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